

“전남대병원 외상센터 취소 땀 의료공백 우려”

병원 전전 2세 남아 사망 관련 보건부 지정 취소 검토 “개소 1년 전원을 급감 등 성과...시스템 보완 우선” 여론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외상 소아환자(2세 남아)가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관련 외상센터 등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라는 강경책을 밝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견인차에 치인 두 살배기 남아는 가장 먼저 이송됐던 병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거부를 받아 뒤늦게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복지부는 어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커지자 최근 전북대·전남대병원 등 3개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를 포함한 엄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해당 권역병원과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대다수 권역외상센터들이 모든 분야의 중증 외상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함에도, 여론을 의식해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숨진 2세 남아를 받지 못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중증 외상 소아를 볼 수 있는 소아외과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전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문제의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시정조치와 함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고,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중증외상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적극 추진했던 권역외상센터지정사업에 대해 시행 초기 단계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국내

의료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정 취소에 따른 응급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아동 사망과 관련해 전원 의뢰병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초기에 정확한 환자정보를 받지 못했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이어서 미세혈관 및 신경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틀간 전남대병원 현지 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공동 조사팀은 “전남대병원측은 외상환자 수용 의료인력의 부재라기보다는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근거로 전문인력 부족(미세접합 수술 및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부재)에 따른 판단을 의뢰병원에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9월

20일 개소해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소 전후의 환자치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상센터 개소 이전 일반응급환자와 외상환자를 함께 치료했던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20%로 전국 평균(67%) 보다 훨씬 높아 신속한 처치를 위해 부득이 타 병원으로의 전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상센터가 개원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외상환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 늘어난 475명이었지만, 타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전원은 9.25%에서 2.75%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아직 초기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남대병원 외상센터는 1년여 동안 성과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정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옛 광주학생회관 앞에서 선거활동 선포식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청소년 의원 선거 내달 첫 시행

정당 득표수별 의원 22명 선출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 7조에 의해 전국 시·도 최초로 ‘제1대 광주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직접 선거를 치른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에 수요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직접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사회참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발돋움하고자 의회를 구성한다.

이번 선거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19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 사전투표, 7~20일 온라인 투표, 21~27일 현장투표 등 총 3차례(중복투표 불가) 직접 투표를 통해 정당 득표수별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22

명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9일 정당별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6개 정당 56명이 등록했으며, 현재 광주지역은 8개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등록 정당은 두드림당, 모꼬지당, 사람답게 살고 싶당, 청소년이 참여 한당, 빛고을당, 혁신당, 동(同)동(勵)당, 청년의당 등이다.

이명을 선거관리위원장(문성고 3학년)은 “전국 시·도 최초로 진행되는 선거이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기본으로 삼아 정당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련 문의는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사무국 전화(062-234-0755 / 답답투표, 21~27일 현장투표 등 총 3차례(중복투표 불가) 직접 투표를 통해 정당 득표수별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22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놀면서 배우기 지난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박람회장에 마련된 놀이마당에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와 배움의 축제’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주지역 50여 개 평생교육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평생교육 체험의 장이 펼쳐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도시농부 교육 수강생 19일까지 모집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재배의 기초를 교육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 생태농사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업의 필요성, 흙을 통해 배우는 농사이야기, 텃밭작물 재배의 기초 등 도시농부라면 알아야 할 기초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

은 24일부터 11월4일까지이며, 총 2기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친환경 농업,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유기농업을 직접 실천하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생들에게는 직접 도시농부 어울림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 일정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gwangju.go.kr) 열린마당의 교육·견학신청(Ok예약)에서 확인하고,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각 25명씩 총 50명 모집).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62-613-5307).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3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71명 참여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도시재생 확산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사진> 제3기 도시재생대학은 공무원, 시민, 건축사 등 71명이 참여해 다음달 29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빛고을고객센터 1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8주 동안 실시되는 제3기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전문가를 조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펼쳐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4주차에는 군산, 전주 일대의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소규모 현장실습 등을 통해 선진 사례를 비교하고 체험해 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지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5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팀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현장학습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속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경매투자자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10월 31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